

## 영상검진 술식 및 판정의 표준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

정 규 병

### Standardization of Imaging Techniques and Image Readings

Kyoo-Byung Chung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Diagnostic Radiology*

정확한 영상 검진은 좋은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영상을 정확하게 판독(정)하는 것이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이다.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양질의 장비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촬영기법으로 판독에 적합한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견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촬영, 조영촬영, 유방촬영, CT, 골밀도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기본 술식을 검사 항목 및 부위별로 제시하여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영상의 판독은 주관적인 행위이므로 객관화 또는 계량화가 어렵지만, 판정의 중요한 테두리 또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판독자 간의 차이를 줄이고, 피검자나 판정의사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여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고, 견협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영상검진항목에 주안점을 두었다.

#### 1. 영상 검진 술식 지침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23개 항목의 일반촬영에 대하여 Position, FFD, 각도, 포함해야 하는 field의 크기 등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나. 위장조영촬영 등 5개 항목의 조영촬영과 경정맥신우조영촬영(IVP)에 대하여 전처치, 촬영부위, 촬영 매수, 조영제의 농도, 자세 등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유방촬영, 유방확대촬영 등은 최상의 양질 검사가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장비 및 촬영기법, 판독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함. 자세한 촬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라. CT의 적응증, 전처치, 표준화된 검사 방법, 조영제 사용, 검사부위에 따른 차이 및 주의점 등을 자세히 열거하였다.

마. 골밀도검사는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X-선을 이용한 골밀도를 기준으로 자세, 검사부위, scan 방법, 각도 등과 프로그램 작동법 등을 제시하였다.

바. 초음파 검진은 복부, 갑상선, 전립선, 유방 등 검사부위에 따라 전처치, 자세, 포함 부위 사용하는 탐촉자 등을 제시하였다.

## 2. 방사선 영상검사 판정의 표준화

가. 상복부 초음파검사에서는 흔한 소견인 지방간, 간낭종, 간혈관종, 신낭종, 담낭결석, 담낭폴립 등의 유소견에 대하여 판정의 객관적 기준과 요망 사항을 제시하여 피검자의 이해를 돕게 하였다.

나. 유방촬영 및 유방초음파검사는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거나 자세한 병변의

묘사보다는 향후 추적검사 내지는 치료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ACR의 Breast Imaging Reports and Data System (BI-RADS)을 권장하였다.

다. 흉부촬영에서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작은 석회화, 육아종, 늑막비후 등은 정상으로 간주하고 결핵, 폐렴, 종양, 농양, 늑막염, 심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 및 추가검사를 권장한다.

라. 위장조영촬영에서 유소견이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위내시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란성 위염, 위궤양, 위폴립, 위암 등의 판독 기준과 요망사항을 제시하였다.

마. 대장조영촬영 판독시 이상 소견 및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 유무를 기술하였으며, 대장의 유소견으로는 대장암, 폴립, 계실, 대장염 등의 판정 기준과 요망 사항을 제시하였다.